

# 농촌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주관적 소비수준

##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Subjective Level of Consumption of Rural Households

손 상 희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Sohn, Sang Hee  
Dept. of Home Management, Taejon Univ.

---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subjective level of consumption of rural households. In this study,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was defined to include 'budgeting' and 'expenditure manage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215 rural households in 13 different provinces of Chungnam, and 203 households were used for the analysis. Frequency distribution, means, and path analysis were employ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Budgeting behavior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ural households' subjective level of consumption, while expenditure management behavior didn'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This implies that active and systematic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such as budgeting is more effective than relatively passiv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like expenditure management on the enhancement of economic well-being of rural households. Age, education, and number of non-farm earners had indirect effects on the subjective level of consumption through budgeting behavior. Income stability had a direct effect and income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the subjective level of consumption.

### I. 서 론

가계행동의 궁극적 목표는 가계의 복지이다. 복지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는 건강, 안락, 행복, 즉 복지를 가져오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된다. 인간은 수많은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의 많은 부분은 충족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필요로 하며, 소비를 통한 욕구의 충족은 인간에게 만족을 준다.

Davis(1945)에 의하면 소비수준은 가계가 실제로 사용하거나 경험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집합이며,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만족이나 복지수준이 높다. 소비와 복지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가정은 대체로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가계의 소비지출수준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90년 이후에도 가계의 소비지출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매년 6-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1995년 농촌가계의 연간 소비지출은 1,478만원으로 도시 근로자가계의 1,624만원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다(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7). 이는 농촌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도시가계에 비해 낮은 것을 나타내며, 소득이 낮을 뿐 아니라 매년 불규칙하고 기후나 정부정책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촌가계의 경우 소득을 잘 관리하는 재무관리행동이 더욱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내용으로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촌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의 현황에 대한 이해와 재무관리행동과 소비수준, 나아가서는 가계복지와의 관계를 밝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매우 필요하다.

그간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복지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김연정·김순미, 1991; 김순미, 1993; 김혜정·이기영, 1997), 농촌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또한 가계소비에 관한 국내연구는 소비지출의 변화추이나 영향요인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최은숙, 1990; 최은숙·김인숙, 1991; 양세정, 1991; 이성민, 1992; 김정숙, 1992; Sohn & Yang, 1997), 몇몇 연구들에서 소비지출패턴을 규명하고 분석하였다(정영숙, 1992; 강이주, 1995). 이러한 연구들이 이용한 자료는 대부분 통계청이나 농림부에서 조사한 전국적 자료인데, 표본의 수가 많고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본적인 인구통계적 변수외에 다른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만을 포함한다는 한계점도 있다. 또한 복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객관적 지표뿐 아니라 주관적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김민정, 1994)에 비추어 볼 때, 주관적 소비수준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수준이 가계복지의 중요한 지표라는 가정하에 주관적 소비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농촌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주관적 소비수준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농촌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주관적

소비수준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농촌가계의 복지를 위한 정책결정과 프로그램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농촌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농촌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은 주관적 소비수준에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3] 농촌가계의 주관적 소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가계재무관리

#### (1) 가계재무관리의 개념 및 요소

가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생 과정으로서의 재무관리는 소득에 대한 지출계획과 관리, 소득과 자산의 보호, 소득과 자산의 증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과정으로 정의되어 왔다(Garman & Fargue, 1994). 실증적 연구에서 재무관리행동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측정되었으나, 대체로 소득에 대한 지출계획과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Voydanoff와 Donnelly(1989)는 재무관리행동으로 예산수립, 지출기록, 중요한 목표설정의 세 변수를 포함하였고, Mugenda, Hira와 Fanslow(1990)는 금전관리행동으로 소득과 지출의 계산, 지출습관의 검토 및 평가, 순자산의 측정을 포함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Scannell(1990)은 재무관리행동으로 지출계획, 지출기록, 예산과 지출의 비교, 순자산의 측정 등 12개 문항을 포함하였고, Godwin과 Koonce(1992)는 현금흐름의 관리행동으로 예산수립, 지출기록, 소득과 지출관리, 수지평가, 예산조정의 5개 항목하에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더 나아가 Godwin(1994)은 Voydanoff와 Donnelly(1989)가 사용했던 재무관리행동의 세 영역, 즉 예산수립, 지출기록, 목표설정의 분류를 따라 하위항목 22문항을 설정하였다.

국내연구들도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다양한 척도를 구성하였다. 그 중에서 농촌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

면, 배희선·최은숙(1995)의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으로 계획·수행관리지표, 부채사용행동, 저축행동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척도를 이용하였고, 이 중에서 계획·수행관리지표는 예산생활, 가계부기록, 필요확인, 목록작성, 영수증보관, 구매평가의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5)는 재정문제의 계획과 수행에만 초점을 두었고, 그에 관한 15개 문항을 재무관리행동척도로 하여 분석하였다. 배희선·최현자(1996)의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을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대비행동, 노후준비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화폐관리행동은 단기적인 소득관리에 관한 7항목으로, 자녀교육비대비행동, 노후준비행동은 각각 1문항씩으로 측정하였다.

(2) 가계재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계가 소망하는 생활양식에 적합한 목표를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생동안에 걸친 계획이 필요하며, 재무관리는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가계특성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의 빈도나 종류와 정도를 밝히는 연구들과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변수로서의 재무관리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가계특성에 따라 재무관리행동을 분석한 연구들의 결과는 대체로 관리능력을 결정하는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인적자본과, 재무관리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소득, 자산, 부채와 같은 경제적 자원에 따라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이 달라짐을 밝히고 있다(김연정·김순미, 1991; Godwin, 1994; 배희선·최은숙, 1995; 임정빈·조미환·이영호, 1995; 배희선·최현자, 1996; DeVaney et al., 1996; 김혜정·이기영, 1997).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 재무관리행동이 재정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무관리행동이 오히려 경제적 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여서 정신건강이나 재정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들이 있는 한편(Voydanoff & Donnelly, 1989; Mugenda, Hira, & Fanslow, 1990; 황덕순, 1993), 재무관리행동의 하위영역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Scannell, 1990; 배희선·최현자, 1996; 김혜정·이기영, 1997)와 정(+ )적 영향을 밝힌 연구들(김연정·김순미, 1991; 김순미, 1993; 임정빈·조미환·이영호,

1995)이 있어, 일관성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차이는 각 연구에서 재무관리행동을 정의한 방식과 연구대상의 차이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농촌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배희선·최은숙(1995)은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179명의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주부의 연령만이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변수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계획·수행관리행동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5)는 전국 5개도에 거주하는 411명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문제를 덜 경험할수록, 경제적 상승감과 경제적 기대감이 클수록 재무관리행동의 수행정도가 높았고, 또 재무관리행동을 잘 수행할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농촌지역 706가구를 대상으로 연구한 배희선·최현자(1996)의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교육수준, 화폐자산, 소득이 정(+ )적 영향력을 보였다. 자녀교육비대비행동과 노후준비행동은 재정만족도에 정(+ )적 영향을 나타내었으나, 화폐관리행동은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가계의 소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통경제이론에서 소비는 소득, 가격, 선호의 함수이며, 이러한 조건 중의 하나가 변화하는 경우 소비수요가 변화한다고 본다. 가계소비는 더 나아가서 소비에 대한 필요를 결정하는 가족크기 및 가족구성의 영향을 받는다(Magrabi et al., 1991). 어느 일정기간의 횡단 분석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가격(물가)의 변동이 없다고 보고, 소비를 대개 소득과 선호, 그리고 필요의 함수로 본다.

가계소비수준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대개 가계의 소비지출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밝혀내고 있는 것은 소득, 자산, 교육수준, 가족크기, 연령 또는 가족생활주기 등이 가계의 소비지출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최은숙, 1990; 양세정, 1991; 최은숙·김인숙, 1991; 김정숙, 1992; 이성민, 1992; Sohn & Yang, 1997). 1988년 전국농가경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

계의 소비지출을 분석한 최은숙·김인숙(1991)의 연구에서도 농업소득, 농외소득, 경지규모, 부채, 가족원수, 취업자수, 가구주의 성, 교육수준, 연령 등이 가계소비지출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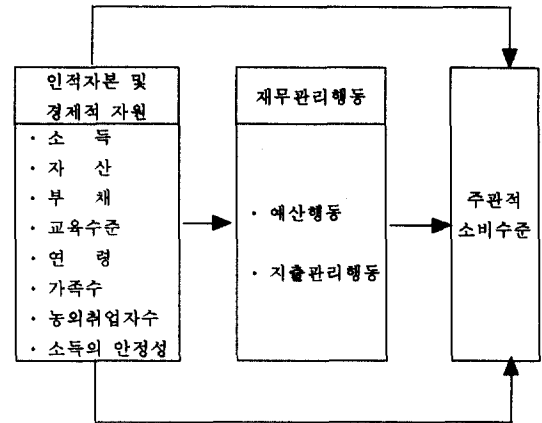
주관적 소비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유사한 내용의 연구로 주관적 복지 또는 소비생활에서의 주관적 박탈감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최은숙·노자경(1991)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3 농촌가구를 대상으로 객관적 경제복지와 주관적 경제복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주관적 경제복지는 경제적 상태 평가에 관한 1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농촌가계의 주관적 복지수준은 경지규모, 순자산, 총소득, 소득발생빈도, 가족원수, 가구주교육수준, 농외취업자수, 편의시설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혜(1992)는 도시빈곤층가계와 중산층가계의 객관적, 주관적 상대적 박탈에 대해 연구하였다. 주관적 박탈수준은 소비생활의 8개 하위범주와 전반적 소비생활에 대하여 우리나라 평균 소비생활수준에 비해 느끼는 박탈감을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연령, 교육수준, 소득, 자산, 거주지계층이 주관적 박탈수준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으며, 소득의 효과가 자산의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연구에서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지표와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과 측정도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재무관리능력을 결정하는 연령·교육수준과 같은 인적자본과 재무관리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소득·자산·부채와 같은 경제적 자원에 따라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이 달라짐을 밝힌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 자산, 부채, 가구주의 교육수준, 연령, 가족수, 농외취업자수, 소득의 안정성을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상의 변수들이 주관적 소비수준에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으

므로, 주관적 소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상의 변수와 함께 재무관리 변수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변수들과 재무관리행동, 주관적 소비수준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므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재무관리행동은 소득에 대한 지출계획과 관리행동에 국한하여 '예산행동'과 '지출관리행동'의 두 지표로 구성하였다. 예산행동은 Voydanoff와 Donnelly(1989)의 분류에 의거하여 '평소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로 예산을 세워 지출한다', '지출을 기록한다', '장래의 특정목표를 위해 저축이나 계를 한다'의 세 문항을 포함하였고, 지출관리행동은 '돈이 생길 때마다 쓰기도는 조금이라도 모아둔다', '고정지출을 먼저 하고 다른 지출은 현재의 소득범위내에서 한다', '영수증을 챙겨 받고 보관한다', '소비하기전에 꼭 사야 하는지를 꼼꼼히 생각하는 편이다'의 네 문항을 포함하는데, 예산행동에 비해서 소극적인 재무관리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각 문항의 측정은 '거의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하였다. 예산행동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55, 지출관리의 신뢰도계수는 .54였다. 주관적 소비수준은 윤정혜(1992)의 연구를 참조로 하여, '식료품소비수준', '의류소비수준', '주거생활수준', '가구·가전제품 소유수준', '건

강생활수준', '가족활동·교양·오락생활수준', '자녀교육수준'의 7영역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 점수들을 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부족하다(1).....매우 풍족하다(5)'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주관적 소비수준의 신뢰도계수는 .78이었다.

## 2. 자료

분석자료는 충청남도의 총 16개 군 중 농업화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과 전형적인 답작 지역, 도시근교 농업지역을 고루 포함하기 위해 유의적으로 선정한 13개군에서 215가구를 추출하여 직접면접조사를 한 것이다. 면접조사에는 사전교육을 받은 대학생 17명과 해당 군 농촌지도소 직원 4명이 참여하였고, 예비조사를 거쳐 1995년 1월 24일부터 2월 15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203가구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3. 분석방법 및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평균, 빈도분포, 변수들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와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경로분석은 두 단계의 중회귀분석을 포함하는데, 유의한 경로모형을 추출하고 또한 최적모형을 찾기 위해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별 회귀분석에 포함한 독립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소득은 가계의 연평균 소득수준으로 농업경영비를 제한 순농업소득과 농의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금융자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은행저축, 보험, 유가증권, 지금까지 불입한 갯돈, 사채 준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측정하였다. 실물자산은 소유하고 있는 동물, 과수·나무, 자동차, 농경지외의 부동산 등을 합한 금액으로, 농경지의 경우 시가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제외하였다. 부채는 농협, 은행부채, 사채 쓴 금액, 미리 타고 덜 넣은 갯돈, 덜 갠 할부금, 외상 등을 포함한 가계의 총부채액으로 측정하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재이상의 4개 범주로 측정하였고, 가구주 연령과 가족수는 있는 그대로 측정하였다. 농외취업자수

는 부부가 둘다 비취업일 경우에는 0, 부부 중 한 명이 농외취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1, 둘다 취업시에는 2점을 주었다. 소득의 안정성은 소득의 안정성에 대한 주관적 인지로 정의하였으며,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다(1).....매우 안정적이다(4)'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통계처리는 SAS PC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조사대상가계의 전반적인 재정상태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연평균 소득수준은 1,302만 4천원으로, 농림부에서 조사한 1994년 전국 연평균 농가소득 2,031만 6천원(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7)에 비해서 훨씬 적은 액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총소득에 포함한 농업소득이 농업경영비를 제외한 순농업소득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순소득의 개념이 농가의 경제복지를 나타내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자산의 보유가계는 83.3%로 보유율은 높은 편이나, 평균액수는 연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기규모를 보면 절반이상의 가계가 3,000평미만의 경지를 소유하여 영세한 규모의 농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가계의 대부분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가계가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물자산의 규모는 금융자산에 비해 큰 편이지만, 영농의 수단이 되거나 유동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실제 소비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91.1%의 가계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높은 부채보유율이 농가의 일반적 특성임을 나타내었다. 또한 평균 부채액은 총소득을 상회하였다. 소득 안정성의 평균값은 2.3으로 중간수준을 나타내었고 58.1%의 가계는 소득이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다소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인지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을 살펴볼 때 농촌가계의 재정상태가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안정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가구주나 배우자가 농외취업을 하고 있는 가계는 22.2%였다. 가구주 연령은 평균 51.2세이고, 대부분이 41세이상에 분포되어 있었으

며, 절반이상이 중졸이하의 낮은 학력분포를 보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특 성                | 구 분             | %          |
|--------------------|-----------------|------------|
| 연평균 소득수준           | 평균(원)           | 13,024,200 |
| 금융자산               | 평균(원)           | 8,239,700  |
|                    | 보유가계            | 83.3       |
| 경지규모               | 1,500평 미만       | 24.6       |
|                    | 1,500-3,000평 미만 | 33.7       |
|                    | 3,000-6,000평 미만 | 31.2       |
|                    | 6,000평 이상       | 10.6       |
| 주택소유여부             | 자가              | 93.5       |
| 실물자산               | 평균(원)           | 40,075,300 |
|                    | 보유가계            | 94.6       |
| 총부채액               | 평균(원)           | 14,795,500 |
|                    | 보유가계            | 91.1       |
| 소득의 안정성            | 평균              | 2.3        |
| 농의취업<br>(가구주나 배우자) |                 | 22.2       |
| 가구주 성별             | 남자              | 98.6       |
| 가구주 연령             | 평균(세)           | 51.2       |
|                    | 40세 이하          | 18.2       |
|                    | 41-50세          | 29.6       |
|                    | 51-60세          | 33.5       |
|                    | 61세 이상          | 18.7       |
| 가구주 교육수준           | 국졸이하            | 43.6       |
|                    | 중졸              | 22.3       |
|                    | 고졸              | 30.2       |
|                    | 대졸이상            | 3.9        |
| 가족수                | 평균(명)           | 4.6        |

2. 재무관리행동과 영향요인

농촌가계의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보면(표 2), 예산행동 수행여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한 가계는 부정적으로 답한 가계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반면, 지출관리행동의 수행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가계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이는 평균값에서도 나타나는데, 예산행동의 평균은 2.40에서 2.45 사이로 중간정도의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지출관리행동의 평균은

3.21에서 3.49로 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농촌가계는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기록하며, 장래의 특정목표를 미리 계획하는 적극적인 재무관리행동보다는 소비전에 구매를 꼭 해야하는지를 생각하고, 고정지출을 먼저하고 다른 지출은 현재의 소득범위내에 맞추며, 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두고, 영수증을 챙기는 소극적인 재무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재무관리행동의 수준

|        | 거의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계     | 평균<br>(표준편차) |
|--------|------------|------------|---------|---------|-------|--------------|
|        |            |            |         |         |       |              |
| 예산행동   |            |            |         |         |       |              |
| 예산수립   | 19.3       | 34.7       | 29.7    | 16.3    | 100.0 | 2.43(0.98)   |
| 지출기록   | 25.9       | 29.9       | 22.4    | 21.9    | 100.0 | 2.40(1.10)   |
| 특정목표설정 | 29.0       | 16.5       | 35.0    | 19.5    | 100.0 | 2.45(1.11)   |
| 지출관리행동 |            |            |         |         |       |              |
| 소비전 검토 | 3.4        | 13.8       | 34.5    | 48.3    | 100.0 | 3.28(0.83)   |
| 고정지출먼저 | 3.0        | 5.9        | 30.5    | 60.6    | 100.0 | 3.49(0.74)   |
| 돈을 모아둠 | 3.0        | 10.9       | 39.6    | 46.5    | 100.0 | 3.30(0.78)   |
| 영수증보관  | 9.4        | 11.3       | 28.1    | 51.2    | 100.0 | 3.21(0.98)   |

\* % 분포임.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기 위해서 우선 <표 3>에서와 같이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예산행동이 여러 변수들(소득, 금융자산, 교육수준, 연령, 농의취업자수)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지출관리행동은 어떤 변수와도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지출관리행동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이는 농촌가계의 제반 특성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농촌가계가 지출관리행동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산행동에 대한 단계별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분석의 가정들을 검증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없었고 잔차가 정규확률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종속변수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은 28.4%였다.

<표 3> 변수들의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1.소득       | -        |         |         |          |          |          |       |         |         |         |      |    |
| 2.금융자산     | .288***  | -       |         |          |          |          |       |         |         |         |      |    |
| 3.실물자산     | .170*    | .095    | -       |          |          |          |       |         |         |         |      |    |
| 4.총부채액     | .366***  | .143*   | .252*** | -        |          |          |       |         |         |         |      |    |
| 5.교육수준     | .288***  | .263*** | .282*** | .232**   | -        |          |       |         |         |         |      |    |
| 6.연령       | -.320*** | -.161*  | -.052   | -.267*** | -.530*** | -        |       |         |         |         |      |    |
| 7.가족수      | .004     | .051    | -.006   | .045     | .048     | -.178*   | -     |         |         |         |      |    |
| 8.농외취업자수   | .103     | .070    | -.054   | -.060    | .124     | -.067    | -.056 | -       |         |         |      |    |
| 9.소득의 안정성  | .037     | .118    | -.043   | -.338*** | -.061    | .190**   | -.051 | .014    | -       |         |      |    |
| 10.예산행동    | .279***  | .212**  | .039    | .100     | .410***  | -.443*** | .132  | .229*** | .013    | -       |      |    |
| 11.지출관리행동  | -.003    | -.032   | .042    | -.015    | -.109    | .036     | -.006 | -.019   | .064    | .335*** | -    |    |
| 12.주관적소비수준 | .367***  | .255*** | .079    | .105     | .141     | -.169*   | -.057 | .061    | .275*** | .260*** | .049 | -  |

\*p<.05 \*\*p<.01 \*\*\*p<.001

<표 4> 경로모형의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  
(β 값)

| 독립변수           | 예산행동            | 주관적 소비수준  |
|----------------|-----------------|-----------|
| 소득             | .160*           | .260***   |
| 금융자산           | ..              | .121      |
| 실물자산           | ..              | ..        |
| 총부채액           | -.104           | ..        |
| 교육수준           | .219**          | ..        |
| 연령             | -.271***        | ..        |
| 가족수            | ..              | ..        |
| 농외취업자수         | .184**          | ..        |
| 소득의 안정성        | ..              | .233***   |
| 예산행동           | ..              | .187**    |
| 지출관리행동         | .. <sup>a</sup> | ..        |
| R <sup>2</sup> | .284            | .245      |
| F              | 13.483***       | 13.461*** |

\*p<.05 \*\*p<.01 \*\*\*p<.001

<sup>a</sup> ‘.’으로 표시된 변수들은 단계별 회귀분석 과정에서 제거된 변수들임. 지출관리행동도 R값이 모형에 포함될 정도로 유의하지 않아 제거되었음.

분석결과 소득, 교육수준, 연령, 농외취업자수 등이 농촌가계의 예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농외취업자수가

많을수록 예산행동을 더 잘 수행하였다. 가계의 소득수준이 높고 농외취업자수가 많을수록 체계적인 재무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예산행동을 더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재무관리의 능력을 결정하는 인적자본으로서 예산행동을 잘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은 예산행동에 대하여 부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배희선·최은숙(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재무관리경험이 증가하여 재무관리행동을 더 잘 수행할 수도 있으나, 농가에서는 이러한 효과보다는 연령이 낮을수록 미래를 계획하고 일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행동성향이 더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금융자산, 실물자산, 총부채액, 가족수, 소득의 안정성은 농가의 예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행동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연령효과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수준, 농외취업자수, 소득의 순이었다.

### 3. 주관적 소비수준과 영향요인

농가의 주관적 소비수준에 대한 백분율분포를 보면(표 5), 많은 가계가 ‘그저 그렇다’ 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활동·교양·오락생활수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매우 부족’ 또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자녀 교육수준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강생활수준, 식료품소비수준, 가구·가전제품 소유수준, 주거생활수준, 의류소비수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활동·교양·오락생활수준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전체 소비수준의 평균은 소비수준의 하위분항의 수를 고려하여 환산한 값이 2.75로서 중간점수보다 다소 부족한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건강, 식생활과 같은 기본적 소비영역의 충족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비교적 잘 이루어지며, 의생활, 가족활동·교양·오락생활과 같은 선택적 소비영역의 충족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녀교육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대다수의 농촌가계가 다른 소비영역에 비해 자녀교육을 위한 소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관적 소비수준에 대한 단계별 회귀분석결과, 회귀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모델의 설명력은 24.5%로 나타났다(표 4).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없었고 잔차가 정규확률분포를 이루는 것이 확인되었다. 소득, 금융자산, 연령, 소득의 안정성, 예산행동등이 주관적 소비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표 3),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소비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소득과 소득의 안정성, 예산행동만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자산, 실물자산, 총부채액의 자산변수와 교육수준, 연령, 가족수,

농의취업자수, 지출관리행동 등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단계별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되었으나 소득, 소득의 안정성, 예산행동을 통제했을 때 영향력이 떨어져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이라 보인다.

주관적 소비수준에 대한 변수들의 직접효과와 예산행동에의 영향을 통한 간접효과를 보기 위한 경로분석의 결과는 <그림 2>와 <표 6>에 제시되었다. 소득의 안정성, 예산행동이 주관적 소비수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한편, 교육수준, 연령, 농의취업자수는 예산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소득은 직접효과와 함께 예산행동을 통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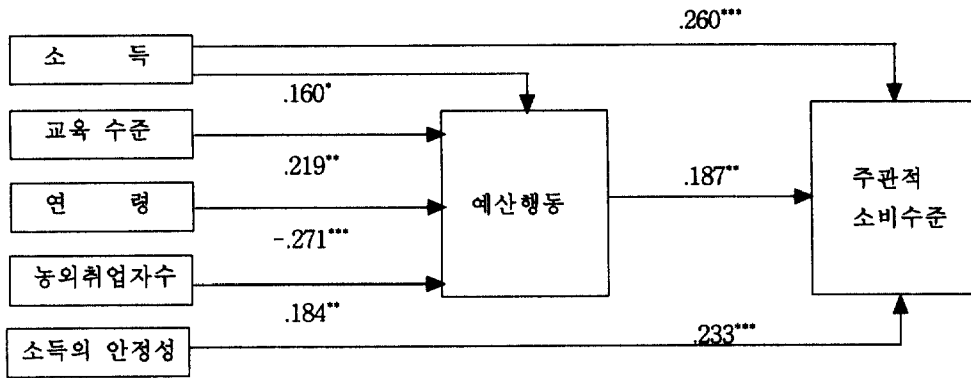
즉,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농의취업자수가 많을수록, 소득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또한 예산행동을 잘 수행할수록 주관적 소비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주관적 소비수준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던 연령(표 3)이 가진 효과는 예산행동을 통한 간접효과임을 알 수 있다.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 볼 때 주관적 소비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은 소득이었고 다음으로 소득의 안정성과 예산행동이었으며, 다음으로 연령, 교육수준, 농의취업자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주관적 소비수준

|                | 매우<br>부족하다 <sup>a</sup> | 약간<br>부족하다 <sup>a</sup> | 그저<br>그렇다 <sup>a</sup> | 약간<br>풍족하다 <sup>a</sup> | 매우<br>풍족하다 <sup>a</sup> | 평균(표준편차)    |
|----------------|-------------------------|-------------------------|------------------------|-------------------------|-------------------------|-------------|
| 식료품소비수준        | 5.9                     | 20.2                    | 57.1                   | 12.8                    | 3.9                     | 2.89(0.85)  |
| 의류소비수준         | 9.9                     | 31.0                    | 49.3                   | 8.4                     | 1.5                     | 2.61(0.83)  |
| 주거생활수준         | 9.4                     | 30.5                    | 37.9                   | 17.2                    | 4.9                     | 2.78(1.00)  |
| 가구·가전제품소유수준    | 8.4                     | 25.6                    | 45.3                   | 16.3                    | 4.4                     | 2.83(0.95)  |
| 건강생활수준         | 7.9                     | 27.1                    | 35.5                   | 21.2                    | 8.4                     | 2.95(1.07)  |
| 가족활동·교양·오락생활수준 | 36.9                    | 31.0                    | 24.1                   | 5.9                     | 2.0                     | 2.05(1.01)  |
| 자녀교육수준         | 7.0                     | 16.1                    | 48.2                   | 20.1                    | 8.5                     | 3.07(0.99)  |
| 전체소비수준         |                         |                         |                        |                         |                         | 19.22(4.39) |
| 하위분항수를 고려한 환산치 |                         |                         |                        |                         |                         | 2.75        |

<sup>a</sup> % 분포임.





\*p<.05 \*\*p<.01 \*\*\*p<.001

<그림 2> 주관적 소비수준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표 6> 주관적 소비수준에 대한 제변수의 인과적 영향력 분석

| 독립변수    | 총효과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
| 소득      | .290  | .260 | .030  |
| 교육수준    | .041  |      | .041  |
| 연령      | -.051 |      | -.051 |
| 농외취업자수  | .034  |      | .034  |
| 소득의 안정성 | .233  | .233 |       |
| 예산행동    | .187  | .187 |       |

### V. 결 론

본 연구는 주관적 소비수준이 가계의 경제복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가정하에, 농촌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이 주관적 소비수준에 영향을 주는지, 또 재무관리행동과 주관적 소비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농촌가계의 경제복지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무관리행동은 예산행동과 지출관리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예산행동은 주관적 소비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지출관리행동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이는 대다수의 농촌가계가 소극적

인 재무관리행동, 즉 소비전에 검토하고, 고정지출을 먼저 하고 다른 지출은 소득범위내에서 하며, 돈이 생길 때마다 쓰는 대신 모아두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지출관리행동을 잘 수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경제복지를 위해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재무관리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행동이 경제복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농촌가계가 소극적인 재무관리행동 뿐 아니라 적극적인 재무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각 항목별로 예산을 세우는 방법, 가계부기록과 같은 지출기록, 장래의 목표를 미리 계획하여 저축하는 장기 재무설계 등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은 농가 경제복지를 위해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예산행동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과 가구주 교육수준, 농외취업자수, 소득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예산행동의 수행에 있어서 행동수행 능력을 결정하는 인적자본과 필요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영향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산행동 수행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능력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대상에 따라 다른 내용과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뿐 아니라 낮은 가계의 경우 더욱 예산행동이 필요함을 인식시키는 일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

예산행동에 의 소득의 안정성과 소득, 연령, 교육수준, 농의취업자수도 주관적 소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밝혀졌다. 연령, 교육수준, 농의취업자수는 예산행동을 통한 간접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의 안정성은 직접효과를, 소득은 직접,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 부채와 같은 자산변수는 주관적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농촌가계의 주관적 경제복지에 대해서 소득의 영향이 자산의 영향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자산이 주로 영농에 사용됨으로써 소득만큼 농가의 일상적인 소비수준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농촌가계의 주관적 경제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가의 소득창출과 소득의 안정성을 꾀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이주(1995). 선택성 소비지출의 변동을 통한 소비패턴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16, 48-69.
- 김민정(1994).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상호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분석: 체계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 김연정·김순미(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03-117.
- 김정숙(1992). 도시 근로자 가계의 소비지출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36.
- 김혜정·이기영(1997). 주부의 화폐관리전략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 17-26.
- 배희선·최은숙(1995). 농촌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도시근교 농촌을 대상으로. 한국농촌생활과학지, 6(2), 137-149.
- 배희선·최현자(199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주부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및 노후준비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67-179.
- 양세정(1991).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8(2), 54-67.
- 윤정혜(1992). 도시빈곤가계의 상대적 박탈: 소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민(1992). 도시가계의 선택적 소비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9, 53-60.
-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7). 저축생활통계.
-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 : Deacon & Firebaugh의 체계적 접근법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56-169.
- 정영숙(1992). 가계의 소비지출패턴: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3(2), 1-14.
- 최은숙(1990). 우리나라 소비지출 유형의 변화. 소비자학연구, 1(1), 127-157.
- 최은숙·김인숙(1991). 농가의 경제적,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계비 지출분석.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2, 77-89.
- 최은숙·노자경(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 측정 및 관련 변수 연구: 경기도 용인, 이천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1), 13-35.
- 황덕순(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69-82.
- Davis, J.S. (1945). Standards and content of living. American Economic Review, 35, 1-15.
- DeVaney, S.A., Gorham, E.E., Bechman, J.C., & Haldeman, V.A. (1996). Cash flow management and credit use: Effect of a financial information program.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71-79.
- Garman, E.T. & Fogue, R.E. (1994). Personal Finance. 4th Ed. Geneva, IL: Houghton Mifflin Company.
- Godwin, D.D. (1994).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newlyweds' cash flow manag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 Planning, 5, 161-190.
- Godwin, D.D. & Koonce, J.C. (1992). Cash flow management of low-income newlywed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17-42.
- Magrabi, F.M., Chung, Y.S., Cha S.S., & Yang, S.J. (1991).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NY: Praeger Publishers.
- Mugenda, O.M., Hira, T.K., & Fanslow, A.M.(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4), 343-360.
- Scannell, E.(1990). Dairy farm families'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133-146.
- Sohn, S. & Yang, S.J. (1997). Determinants of household food consumption in Korea. Proceedings of the 2nd Asian Consumer & Family Economics Association, 40-49.
- Voydanoff, P. & Donnelly, B.W. (1989). Economic distress and mental health: The role of family coping resources and behavior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39-161.